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1, No. 120, pp.1-42
<https://doi.org/10.29212/mh.2021..120.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6·25전쟁 시기 ‘세균전’ 설 제기 과정과 내막*

전예목**

1. 머리말
2. ‘세균전’ 설 제기 과정
3. ‘세균전’ 설의 내막
4. 맺음말

1. 머리말

불과 몇 개월 사이 낙동강부터 압록강까지 전선이 급격하게 전환

* 이 글은 전예목, “한국전쟁기 북한의 ‘세균전’ 주장과 그 활용,” 한양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21, 1-39쪽을 수정·보완함. 또한 이 글은 제5회 민연 젊은 한국학 아카데미(2020.12.17), “한국전쟁 시기 북한의 동원 정치 및 외교 전략 연구”에서 일부 내용이 발표됨. 이 글을 심사하고 귀중한 조언을 준 네 분의 심사 위원에게 감사 말씀을 올린다.

** 한양대학교 사학과 석사 졸업, 이메일: 1xioix1@hanyang.ac.kr

되었던 6·25전쟁¹⁾ 초기와 달리, 1951년 중반부터 전쟁은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고 정전회담이 진행되었지만 회담도 지지부진하였다. 칼과 펜이 모두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전장에는 ‘세균 무기’라는 신무기(新武器)가 등장하였다. 이에 공산 측은 미군에 대해 ‘세균전’ 혐의를 제기하였고 동시에 전쟁에 참여하는 미국에 대한 국제적 여론을 악화시키기 위해 ‘세균전’ 혐의를 이용한 전 세계적인 선전전을 펼쳤다. 많은 연구자들이 미군이 ‘세균전’을 실제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였지만 지금까지 명확한 결론이 나지는 않았다.

6·25전쟁 시기 ‘세균전’ 설(說)의 진위를 밝히고자 한 연구는 ‘세균전’이 미군에 의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측²⁾과 그렇지 않은 측³⁾으로 크게 양분되어 연구되어 왔다. 세균전 의혹이 사실이라고

1) 학계에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한반도에서 진행된 전쟁을 부르는 명칭은 크게 ‘6·25전쟁’과 ‘한국전쟁’으로 나뉜다. 먼저 ‘한국전쟁’이라는 명칭은 그 가리키는 바가 모호하며 또한 전쟁의 성격을 외국의 시선으로 보아 자국의 역사를 주변적으로 인식하게 한다는 비판이 있다(김학준, 『6·25전쟁에 관한 몇 가지 예비적 토론』, 『탈냉전시대 한국전쟁의 재조명』, (서울: 백산서당, 2000), p.26, p.30). 다만 ‘한국전쟁’이라는 용어가 모호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령 ‘프랑스 혁명’, ‘미국 혁명’이라는 용어가 그 나라의 모든 혁명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듯이 ‘한국전쟁’도 한국에서 일어난 모든 전쟁이 아니라 ‘특정한 역사적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다(박명림, 『한국전쟁/6·25를 기억하는 방식』, 역사비평편집위원회, 『역사용어 바로쓰기』, (서울: 역사비평사, 2006), p.195). 반면에, ‘6·25전쟁’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때의 대표적 비판은 다음과 같다. 북한의 남침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6·25전쟁’이라는 명칭은 6월 25일 남한을 침략한 북한을 증오하는 것을 넘어 6·25전쟁(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더 많은 교훈을 배우는 것을 방해할 여지가 있다(박명림, 같은 책, p.182).

2) Stephen Endicott, “Germ Warfare and ‘Plausible Denial’: The Korean War, 1952–1953,” *Modern China* 5, no. 1, (1979): 79–104; Stephen Endicott, and Edward Hagerman, *The United States and Biological Warfare: Secrets from the Early Cold War and Korea*,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8); Thomas Powell, “Biological Warfare in the Korean War: Allegations and Cover-Up,” *Socialism and Democracy* 31, no. 1, (2017): 23–42; 강정규, 『한국전쟁과 미국의 세균전』, 『분단과 전쟁의 한국현대사』, (서울: 역사비평사, 1996).

주장하는 측의 대표적인 학자로 엔디코트(Endicott)가 있다. 엔디코트는 미국이 '세균전'을 실시하였다는 전제⁴⁾ 하에 미국의 세균 무기 사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고자 하였다. 그는 미국의 여러 문서고에 소재한 문헌을 조사하는 작업을 통해 중국 당국이 제기한 '세균전' 설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정황 증거를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비정규전과 관련하여 CIA가 생물학전에 개입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⁵⁾, 제581 공중재보급 및 통신비행단(581st Air Resupply and Communications Wing)이 사용하던 채프 디스펜서(chaff dispenser)⁶⁾를 통해 박테리아나 곤충을 넣을 수 있는 벧짚이나 나뭇잎을 살포하였을 가능성⁷⁾, 1951년 11월 대통령 산하 심리전략위원회(Psychological Strategy Board)에서 핵무기나 생물학 무기 사용을 암시할 수 있는 “신무기(Novel Weapons)”에 대한 성명서를

3) Kathryn Weathersby, “Deceiving the Deceivers: Moscow, Beijing, Pyongyang and the Allegations of Bacteriological Weapons Use in Korea,”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11, (1998): 176-185; Milton Leitenberg, “New Russian Evidence on the Korean War Biological Warfare Allegations: Background and Analysis,”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11, (1998): 185-199; Milton Leitenberg, “China’s False Allegations of the Use of Biological Weapons by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Korean War,”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Working Paper* 78, (2016): 1-82; Tom Buchanan, “The Courage of Galileo: Joseph Needham and the ‘Germ Warfare’ Allegations in the Korean War,” *History* 86, no. 284, (2001); 조성훈, 「한국전쟁의 세균전 논쟁 비판」, 『군사』 제41호, (2000); 황영원, 「왜 거짓말을 하였는가?」, 『생태환경과 역사』 제2호, (2016).

4) 미국이 '세균전'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세균전'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는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엔디코트가 '세균전'에 대한 '증거'를 찾으려고 하였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가 미국에 의한 '세균전'을 이미 전제하고 연구를 진행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반면에, 미국의 '세균전'의 실시를 전제하지 않은 연구는 소련, 북한, 중국이 내놓은 '증거'의 신빙성을 조사하는 연구일 것이다. 이것은 웨더스비와 라이텐버그가 취한 연구 방법이다.

5) Endicott and Hagerman, *The United States and Biological Warfare*, p.142.

6) 채프 디스펜서의 원래 기능은 비행기로부터 금속 조각을 아래로 살포하여 적의 레이터를 교란하는 것이다.

7) Ibid., p.123.

발표한 사건⁸⁾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엔디코트는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 그 대신 전쟁 기간 동안 미국이 생물학 무기 실험을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일반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미국의 문서고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결론만 내릴 수 있었다.⁹⁾ 한국에서는 강정구¹⁰⁾가 1952년 당시 공산 진영이 기획한 국제과학위원단(International Scientific Commission, ISC)의 보고서와 엔디코트 등의 연구 내용을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세균전이 사실임을 입증하려고 시도하였다.

반면에 ‘세균전’ 설이 공산 진영의 날조라고 주장하는 학자로 우드로 윌슨 센터(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의 냉전 국제사 프로젝트(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에 참가하였던 학자인 캐서린 웨더스비(Kathryn Weathersby)와 밀턴 라이텐버그(Milton Leitenberg)가 있다. 웨더스비¹¹⁾와 라이텐버그¹²⁾는 1998년 『산케이신문 [産經新聞]』의 기사를 통해 얻은 12개의 러시아 연방 대통령 문서관(Архив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¹³⁾ 소장 문헌을 통해 미군에 대한 ‘세균전’ 설이 허구임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12개의 문헌은 1952-1953년 ‘세균전’ 설과 관련하여 소련, 중국 수뇌부 사이에 오고 갔던 문서였다. 이를 통해 당시 중국과 북한이 소련의 허락 혹은 도움으로 세균전 혐의에 대한 증거를 조작하였음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이 소련 문서들은 원본이 아니라 원본의 일부를 수기(手記)로 옮겨 적은 것이기에 원본임을 증명할 수 있

8) Ibid., pp.127-128.

9) Ibid., pp.188-189.

10) 강정구, 위의 책.

11) Weathersby, “Deceiving.”

12) Leitenberg, “New Russian Evidence.”

13) 이후에는 표기 편의상 알파벳으로 표시하여 “Archive of the Presid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APRF)”으로 표기하도록 한다.

는 서명이나 문서 번호와 같은 정보가 없다. 하지만 웨더스비는 사본에 나타나는 인물, 시간, 사건 등이 다른 사료에서 서술하는 것과 일치하므로 사본의 내용이 조작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하였다.¹⁴⁾

한국의 조성훈¹⁵⁾은 1951년과 1952년에 공산 진영에서 제기하였던 ‘세균전’ 설에 대한 쟁점을 분석함으로써 미군의 ‘세균전’ 실시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특히 미군이 세균전을 실시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 미군이 공산 진영의 전쟁포로를 이용하여 세균 실험을 하였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 미군 공군 포로에 의한 세균전 시행 자백은 강압과 회유에 의해 쉽게 도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공산 진영의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이후 공산 진영의 세균전 증거 조작을 입증할 수 있는 사료들이 추가로 발견되었고 라이텐버그는 새롭게 발견된 사료를 반영한 글을 2016년에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그는 기존 입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었다.¹⁶⁾ 새롭게 발견된 사료들은 크게 중국 측 문서와 러시아 측 문서로 나뉜다. 중국 측 문서로 2013년 11월 『염황춘추(炎黃春秋)』¹⁷⁾에 게재되었던 우즈리(吳之理)의 회고

14) Weathersby, “Deceiving,” p.176.

15) 조성훈, 「한국전쟁의 세균전 논쟁 비판」, 『군사』, 제41호, (2000).

16) Leitenberg, “China’s False Allegations.”

17) 『염황춘추』는 1991년 두다오정(杜導正)을 포함한 개혁적 성향의 공산당 원로들이 장간한 잡지이다. 개혁적 성향 탓에 창간 초기부터 중국 정부와 마찰이 있었고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알력이 심해졌다. 급기야 2016년에는 기존 경영진들이 면직되었고 정간되었다. 이후 친정부측 인사로 구성되어 관변화되었으며 지금은 이름만 유지하고 있다(「개혁논조 월간지 ‘염황춘추’ “사장 나이 많다” 교체 명령」, 『조선일보』, 2008.11.5; 「사상통제’ 고삐 죄는 시진핑...장쩌민·후진타오보다 강경」, 『조선일보』, 2016.8.6). 공식 홈페이지에는 이전 경영진 시기에 작성된 기사를 모두 삭제하였다. 한편 CNKI(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 DB를 통해서 2016년 이전의 기사를 볼 수 있지만 우즈리의 회고록이 실린 기사만은 CNKI에서 볼 수 없도록 기사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2013년 11월에 발간된 인

록¹⁸⁾이 있다. 이 회고록은 시진핑의 정치적 통제가 본격화되기 전인 집권 초기에 공개되었다. ‘세균전’ 사건 당시 인민지원군 위생부 부장(部長)이었던 우즈리의 회고록은 1997년 9월에 작성되었으나 그의 사후(死後) 약 15년 만에 공개되었으며 여기에 중국 측이 어떤 방법으로 증거를 조작하였는지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다. 황영원(黃永遠)은 우즈리의 회고록을 주로 인용하면서 ‘세균전’ 설의 조작을 주장하였다.¹⁹⁾

러시아 측 문서는 2010년 러시아 국립 사회 정치사 문서관(Россий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социально-политической истории, РГАСПИ)²⁰⁾에서 공개한 여섯 개의 새로운 문서(스탈린, 마오쩌둥, 저우언라이 사이의 전문), 그리고 2016년에 러시아 국립 현대사 문서관(Россий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Новейшей Истории, РГАНИ)²¹⁾에서 발견한 두 개의 문서가 있다. 라이텐버그에 의하면 이 두 개의 문서는 1998년 『산케이신문』에서 공개된 소련 문헌 중 세 개가 진본임을 밝혀주었다. 이를 통해 1998년에 공개된 소련 사료에 대한 전반적인 신빙성을 높였다. 대부분의 문서가 1953년 스탈린 사후 권력 다툼 시기에 발생한 문서이기에 대규모 ‘세균전’ 선전이 이루어진 1952년의 상황은 알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지만, 동시에 1952년의 상황을 비교적 자유롭게 언급할 수 있었다는 장점도 있다.

한편 톰 뷰케넨(Tom Buchanan)은 영국의 제국 전쟁 박물관

쇄판을 통해서만 기존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18) 우즈리의 회고록은 1997년 9월에 작성되었으나 2008년 그가 사망한 후 발견되었다. 그리고 2013년 11월에 가사야 중국의 개혁적 성향의 잡지인 『炎黃春秋』에 실리게 되었다(Leitenberg, “China’s False Allegations,” p.16).

19) 황영원, 「왜 거짓말을 하였는가?」, 『생태환경과역사』, 제2호, (2016).

20) 이후에는 표기 편의상 알파벳으로 하여 “Russian State Archive of Socio-Political History (RGASP)”으로 표기하도록 한다.

21) 이후에는 표기 편의상 알파벳으로 하여 “Russian State Archive of Contemporary History (RGANI)”으로 표기하도록 한다.

(Imperial War Museum, IWM)이 보유하고 있는 조셉 니덤(Joseph Needham)의 개인 서신이나 영국 외무성의 각종 문서를 통해 니덤이 주도하였던 국제과학위원단(International Scientific Commission, ISC) 보고서의 진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중국 정부가 국제과학위원단의 활동을 제한하여 지정된 곳 이외에는 조사할 수 없었던 사실과 니덤 스스로도 처음에 자신의 전공 분야가 아니라서 국제과학위원단의 조사원 중 한 명으로 참가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새롭게 밝혀냈다. 이를 통해 국제과학위원단의 보고서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결론 내렸다.²²⁾

‘세균전’ 설의 진위에 대한 연구 성과를 종합하자면 다음과 같다. ‘세균전’ 설 진위에 대한 연구는 당시 공산 진영 측이 미군의 ‘세균전’ 설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한 증거들이 조작된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것은 공산 진영에 속한 ‘증거’ 조작에 참가한 이들의 증언과 그것과 관련된 공문서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 북한의 사료와 해외의 사료를 종합하여 ‘세균전’ 설 제기 과정과 그 내막을 살펴보고자 하는 시도는 제한적이었다. 일부 지역에서 생산된 사료만의 사용은 6·25전쟁 시기 ‘세균전’ 설 제기 과정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일을 어렵게 하였다. 본고는 이전 연구의 한계와 성과를 바탕으로 비록 공산 측 사료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지만 최근 발견된 중국과 러시아 사료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미국, 영국 등 다양한 나라의 도서관과 문서고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료를 가능한 폭넓게 활용하였다. 이로써 기존 ‘세균전’ 설 연구에서 다소 관심을 덜 받았던 북한의 움직임에 비롯한 공산 진영이 ‘세균전’ 설을 제기한 과정과 그 내막을 살펴보고자 한다.

22) Buchanan, “The Courage,” p.510, 512, 521.

2. ‘세균전’ 설 제기 과정

6·25전쟁 시기 ‘세균전’ 선전 양상은 북한의 대표적 기관지인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의 기사 제목에서 ‘세균전’ 설과 관련된 어휘가 나타난 빈도를 통해서 일부 파악될 수 있다. 전쟁 시기 ‘세균전’과 ‘세균 무기’라는 단어가 기사 제목으로 등장한 횟수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1>²³⁾과 같으며 1951년, 1952년에 등장한 횟수를 표로 나타낸 것은 <표 1>과 같다. 전쟁 시작부터 1951년까지 ‘세균전’과 ‘세균 무기’가 등장한 횟수는 총 38회이다. 그 전에는 ‘세균전’ 혹은 ‘세균 무기’의 등장여의 없다가 1951년 5월과 6월에 집중적으로 23회 등장하였고, 같은 해 12월에 11회 등장하였다.

1952년의 경우 1952년 3월부터 5월까지 단어 등장 횟수가 극적으로 증가한다. 세균 무기 사용 혐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던 1952년 3월 81회를 정점으로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 27일까지 총 264회 등장하였다. 등장 빈도만 비교하더라도 ‘세

23) <그림 1>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 있는 『로동신문』과 『민주조선』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검색한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다만 데이터베이스는 6·25전쟁 기간에 발간된 모든 신문 기사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으며 누락된 기사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로동신문』은 1950년 9월 15일부터 1951년 1월 8일까지, 1952년 1월부터 2월까지의 모든 기사가, 『민주조선』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0년 12월 31까지의 모든 기사가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두 신문 기사가 모든 존재하지 않는 기간은 1950년 9월 15일부터 1950년 12월 31일까지이다. 따라서 <그림 1>은 누락된 부분을 상호 보완하고 전반적인 추세를 알아보기 위해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의 ‘세균전’과 ‘세균 무기’의 등장 횟수를 합쳐서 표현하였다. 비록 1950년에 4개월 정도 모든 기사가 누락된 기간이 있으나 ‘세균전’과 ‘세균 무기’가 등장 빈도에 관한 대체의 경향을 보는 것과 관련하여 큰 부족함은 없다. 누락 기사에 대한 자료를 주신 통일부 김태민 주무관, MATLAB으로 <그림 1>을 제작해준 이화여자대학교 이예슬 연구원에게 모두 감사사를 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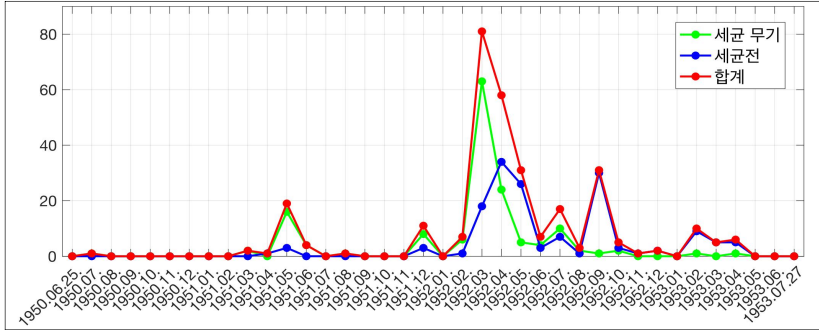
균전’ 선전 양상은 1951년과 분명히 대조된다. 하지만 1952년 내내 ‘세균전’ 선전이 전개된 것이 아니라 1952년 초에 집중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세균전’과 ‘세균 무기’라는 어휘의 등장 빈도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1952년 중후반으로 갈수록 ‘세균전’ 선전이 줄어든 이유는 러시아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쟁 당시 북한의 고문으로 있던 라주바예프에 의하면 북한은 1953년 1월부터 ‘세균전’ 자료 발간을 자제하였으며 중국은 북한에게 같은 해 2월에 ‘세균전’ 폭로를 다시 시작하자는 요청을 하였으나 북한은 이를 거절하였다.²⁴⁾ 또한 1953년 5월과 6월 소련은 중국과 북한에 ‘세균전’ 선전을 더 이상 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²⁵⁾ 소련 측이 ‘세균전’ 선전을 통해 소련이 국제 사회에서 실질적인 정치적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²⁶⁾ 그래프 상에서도 1953년 ‘세균전’과 ‘세균 무기’ 어휘 등장 횟수는 1952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4) “Explanatory Note from Lt. Gen. V.N. Razuvaev to L.P. Beria,” 1953.4.18.

25) “Telegram to V.M. Molotov from Beijing from the USSR Ambassador to the PRC, V.V. Kuznetsov,” 1953.5.11; “Telegram from the USSR Charge d’Affaires in the DPRK, S.P. Suzdalev to V.M. Molotov,” 1953.6.1.

26) “Memorandum from L.P. Beria to G.M. Malenkov and to the Presidium of the CC CPSU,” 1953.4.21; “Protocol No 6 of the Meeting of the Presidium of the CC CPSU,” 1953.4.24.

<그림 1> 6·25전쟁 시기 『로동신문』, 『민주조선』에서
‘세균전’과 ‘세균 무기’ 어휘 등장 빈도(단위: 회)



<표 1> 1951-1952년 연월별 『로동신문』, 『민주조선』에서
‘세균전’과 ‘세균 무기’ 어휘 등장 빈도²⁷⁾

1951년				1952년			
연월	등장 횟수(단위: 회)			연월	등장 횟수(단위: 회)		
	세균전	세균 무기	합계		세균전	세균 무기	합계
1951.05	3	16	19	1952.02	1	6	7
1951.06	0	4	4	1952.03	18	63	81
1951.08	0	1	1	1952.04	34	24	58
1951.12	3	8	11	1952.05	26	5	31
합계	6	29	35	1952.06	3	4	7
총계	35			1952.07	7	10	17
				1952.08	1	2	3
				1952.09	30	1	31
				1952.10	3	2	5
				1952.11	1	0	1
				1952.12	2	0	2
				1953.02	9	1	10
				1953.03	5	0	5
				1953.04	5	1	6
				합계	145	119	264
				총계	264		

27) 특정 달에 ‘세균전’과 ‘세균 무기’ 등장 횟수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표 1>에 연월을 따로 표시하지 않고 생략하였다.

가. 1951년 단발적 '세균전' 설 제기와 샘즈의 특수작전

6·25전쟁 시기 북한을 비롯한 공산 진영이 펼친 세균전 혐의 제기 양상은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다.²⁸⁾ 첫 번째 시기인 1951년 세균전 혐의가 단발적으로 제기되었으며, 두 번째 시기인 1952년 이 되자 1952년 2월부터 세균전 혐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1951년 세균전 혐의 제기는 1951년 3월에 수행되었던 준장 크로포드 샘즈(Crawford F. Sams)의 원산 특수 작전을 계기로 전개되었다. 당시 미 해군은 원산 봉쇄 작전을 그해 2월부터 시작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미국은 원산 주변의 제해권(制海權)을 확보할 수 있었기에 원산 특수 작전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²⁹⁾ 샘즈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에서 보건 개혁을 이끈 인물이며 전쟁 당시에는 더글라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 장군의 보건복지 참모(Public Health and Welfare Section Chief)였다.³⁰⁾

북한에 의해 세균전 혐의가 처음으로 제기되었던 1951년 5월은 1950년 말과 1951년 초 북한 지역에 감염병³¹⁾이 광범위하

28) 북한 발간 서적에서는 본고에서 나는 '1951년 단발적 '세균전' 설 제기', '1952년 본격적 '세균전' 설 제기'를 각각 '미제의 국부적인 세균전의 만행'과 '미제의 전면적인 세균전의 만행'으로 구분하고 있다(고상진과 전도명, 『조선전쟁시기 감염한 미제의 만행』,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9), p.189, p.202).

29) Malcolm W. Cagle and Frank Albert Manson, *The Sea War in Korea*, (Annapolis: United States Naval Institute, 1957), p.398, p.401, p.435. 1951년 2월 15일 미 해군 구축함 월라스(Wallace)와 오즈본(Ozbourne)에 의해 원산 봉쇄 작전이 개시되었다. 이 포위 작전을 통해 미 해군은 원산만의 몇 개의 섬을 점령할 수 있었다. 정전 협정일까지 총 861일 동안 원산 봉쇄는 유지되었고 이것은 당시 미국 현대 해군사에서 가장 긴 봉쇄 작전이었다.

30) Sonia G. Benson and Gerda-Ann Raffaele, *Korean War: Almanac and Primary Sources*, Vol. 1, (Detroit: UXL, 2002), p.182.

31) '전염병(傳染病)'은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는 질병"을 의미하며 '감염병(感染病)'은 사람 사이에 전파되는 전염성 질환과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지 않는 비전염성 질환을 모두 의미한다. 한국에서는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전염병'이

게 퍼진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³²⁾ 당시 북한에 파견된 미국 측 공작원들은 1951년 1월과 2월에 감염병이 매우 유행하고 있고 북한 정부는 이를 대처할 의료적 역량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은 당시 북한이 점령하고 있던 원산에 선페스트(腺pest, bubonic plague), 즉 소위 ‘흑사병’이 유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였다. 이 첩보를 보고받은 샘즈는 진위 여부를 조사할 필요성을 느꼈다. 첩보원들은 의학 전문가가 아니었기에 감염병의 발생 유무는 알 수 있어도 그것이 정확히 어떤 질병인지 판단하는 능력은 갖추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샘즈는 페스트가 발생하였다는 첩보원들의 보고를 믿기 어려웠다.³³⁾

작전의 난이도는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페스트 감염 유무를 알아보기 위해 원산에 잠입하는 9번의 특수 작전 시도가 모두 실패하였기 때문이다.³⁴⁾ 작전이 계속 실패하자 1951년 3월 9일 정오 샘즈가 직접 특수 작전에 참가한다.³⁵⁾ 해군 하급 장교와 남한의 해병대로 구성된 샘즈의 파견대는 적군이 중국인과 북한 사람으로 착각할 수 있게 위장한 다음 적진으로 침투하였고 파견대의 임무는 감염된 환자나 시신을 가지고 오는 것이었다. 그

리는 용어가 사람 사이에 전파되지 않는 질병을 관리하지 않을 문제 소지가 있어 2010년 12월 30일부터 법률 제9847호를 통해 ‘감염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감염병’과 ‘전염병’을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료에서 ‘전염병’이라고 사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서경희,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803388, 2008.12.31; 성민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12.30시행) 주요내용」, 『주간 건강과 질병』 제4권, 제2호(2011.1.14), 2011, p.17).

32) A. E. Cowdrey, *The Medics' War*, (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U.S. Army, 1987). p.220.

33) Crawford F. Sams, *Medic: The Mission of an American Military Doctor in Occupied Japan and Wartorn Korea*, (Armonk, NY: M.E. Sharpe, 1998), pp.246-248.

34) "Plague is Believed Raging among Foe," *New York Times*, 1951.6.19.

35) Sams, *Medic*, p.175.

들이 원산 해안가에 고무보트를 타고 접근하였을 때, 공무원이 때에 맞춰 나와 샘즈의 파견대를 '병원(초가집)'³⁶⁾으로 안내하였다. 하지만 감염병 상황을 파악한 샘즈는 환자를 데리고 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³⁷⁾ 샘즈는 첩보원의 보고와는 다르게 페스트가 아니라 출혈성 천연두였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출혈성 천연두는 피하 출혈로 인해 피부가 검게 보이는 임상 증상을 보이기에 첩보원들이 흑사병으로 오인한 것이었다.³⁸⁾ 이후 샘즈와 부대원들은 적에게 발각되지 않고 모두 무사히 귀환하였다. 한편 북한을 비롯한 공산 진영은 샘즈의 원산 특수 작전을 1951년 4월 9일 뉴스위크(Newsweek)지의 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게 되었고³⁹⁾ 샘즈를 도와주었을 것이라고 의심되는 이들을 처형하였다.⁴⁰⁾

1951년 5월 3일 중국 홍십자회(紅十字會)⁴¹⁾는 이 사실을 왜곡하여 샘즈가 중국 포로를 세균전 실험에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혐의를 국제적십자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와 국제적십자연맹(League of Red Cross Societies, LRCS)에 각각 제소하였다. 또한 홍십자회는 상륙함이 원산에 상륙한 이유가 유행병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는 미국 측의 항변은 세균전 실험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⁴²⁾

36) 공산 측은 아프거나 부상 입은 군인을 '병원'이라고 불리는 곳에 두었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일반 주민들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초가집에 격리시키는 것이었다(Sams, *Medic*, p.248).

37) *New York Times*, 1951.6.19.

38) Cowdrey, *The Medics' War*, p.176.

39) *Ibid.*, p.220.

40) *New York Times*, 1951.6.19.

41) 중국에서는 'Red Cross'에 해당하는 명칭을 한국에서의 '적십자(赤十字)'가 아니라 '홍십자(紅十字)'로 사용하고 있다.

42) Shihchieh Chihshih, *A Chronicle of Principal Events Relating to the Korea Question 1945-1954*, (Peking: Shihchieh Chihshih, 1954)(정용욱과 이길상, 『해방전후 미국의 대한정책사 자료집 13: 소련 중국의 한반도 관련 자료』,

중국의 신화통신도 5월 18일 미국의 AP통신의 내용을 인용하여 유사한 내용을 보도하였다.⁴³⁾ 폴란드의 한 언론은 샘즈가 생물 학전을 위한 시설을 만들기 위해 임명되었다는 조작된 사실을 기사에 실었고 소련의 언론사인 프라우다(Pravda)와 이즈베스티야(Izvestiya)도 유사하게 미군의 세균전 실험 의혹을 보도하였다.⁴⁴⁾

북한 이외의 공산 측은 미군의 세균 실험 의혹, ‘세균전’ 준비 의혹, 화학 무기 사용⁴⁵⁾에 대해서만 언급하였지 미국이 전쟁에 직접 세균 무기를 사용하였다는 혐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은 이 시기에 다른 공산 국가와는 다르게 세균 무기 사용 혐의를 직접 제기하였다. 1951년 5월 8일 외무상 박헌영은 유엔 총회 의장에게 보내는 성명서에서 미군이 “작년 12월에 북조선 으로부터 퇴각할 때 ... 천연두를 전파”하였다면서 미국의 ‘세균 전’ 실시에 대해 공식적으로 처음 항의하였다.⁴⁶⁾ 이 같은 북한의 돌발적 성명서는 당시 조선인민군의 군사의무대 소련 고문이었던 셀리바노프(Selivanov)의 도움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소련 공산당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셀리바노프는 1951년 초 북한 의무진을 도와 미국이 북한 주민에게 천연두를 전파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작성하는 일을 하였는데, 시기와 내용의 유사성으로 보아 여기서 말하는 성명서는 박헌영의 성명서를 지

(서울: 다락방, 1995), p.120).

43) 岳鴻文, 『細菌戰 ?』, (香港: 友聯出版社, 1952)(국민방첩연구소, 『세균모략전: 6.25 당시의 붉은 날조극』, (서울: 甲子文化社, 1984), pp.116-117).

44) Cowdrey, *The Medics' War*, p.220.

45) 중국의 경우 1951년 초 미군의 독가스 사용에 대한 항의가 있었다(「侵朝美軍 使用毒氣炸彈 北大師大同學嚴重抗議」, 『人民日報』, 1951.3.7; 「中國人民志願軍 發言人發表談話 嚴斥侵朝美軍使用毒氣 決不饒恕血腥屠夫定將捉拿嚴予懲辦」, 『人民日報』, 1951.3.17).

46) 「유엔 총회 의장, 안전보장리사회 의장 귀하」, 『조선중앙년감 1951-1952』,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2), p.112.

칭하는 것으로 보인다.⁴⁷⁾

한편 1951년 소련이 '세균전' 설을 책동한 이유 중 하나로 미국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소련의 두려움이 작용하였다는 소련 첩보원의 진술이 있다. 당시 소련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는 하였지만 그 위력이 약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 주재 소련 첩보원은 일본 공산당원을 포섭하여 미국이 일본에서 일본인 시체를 구매하여 세균 실험을 하고 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자 노력하였다.⁴⁸⁾

나. 1952년 본격적 '세균전' 설 제기와 공산 진영 측의 조사

1951년 5월 이후 공산 진영의 세균전 혐의 제기는 줄어들었다. 그러나 1952년 초부터 다시 본격적인 세균전 혐의 제기가 전개되었다. 1952년 2월 18일 모스크바 라디오 방송은 미국의 세균 무기 사용에 대한 혐의를 제기⁴⁹⁾하였고 나흘 뒤인 1952년 2월 22일 박헌영 외무상은 미군이 군용기를 통해 1월 28일부터 '세균 독충'을 철원, 평강 등 북한 지역에 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⁵⁰⁾ 이어서 이튿날인 2월 23일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 『人民日報』는 사설[社論]을 통해 “미국이 군사적 참패를 만회하기 위해 전선과 후방에 독균을 살포하고 있으며 이것은 ‘정전 담판’을 지연시켜 계속 전쟁을 이어나가고 더 잔혹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라

47) “Explanatory Note from Lieutenant Selivanov to L.P. Beria,” 1953.4.14.

48) Yuri A. Rastvorov, “Red Fraud and Intrigue in Far East,” *Life*, 1954.12.06, pp.176-178.

49) Zhang Shu Guang, *Mao's Military Romanticism: China and the Korean War, 1950-1953*, (Lawrence: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95), p.183.

50) 「조선에서의 미제 무력 간섭자들의 세균 무기 사용과 관련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외무상의 성명」, 『조선중앙년감 1953』,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3), p.113-114.

고 주장하였다.⁵¹⁾ 이 사실은 중국이 처음 공식적으로 세균 무기 사용 혐의를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마오쩌둥(毛澤東)은 스탈린에게 이미 1952년 2월 21일에 미국이 세균전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소련의 도움을 요청하는 전문을 보내었다.⁵²⁾ 1952년 2월 24일에는 중국의 외무상인 저우언라이(周恩來)는 중국 정부와 중국 인민을 대표하여 22일에 발표된 박헌영의 성명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고 현재 북한 인민에게 닥친 재난을 단호하게 지지하지 않으면 세계 모든 인민에게 똑같은 재난이 임할 것이라고 호소하였다.⁵³⁾

<표 2> 북한, 중국, 소련이 '세균전' 설을 '검증'하기 위해 조직한 세 개의 조사단

구 분	미국 제국주의 세균전 죄행 조사단	국제민주변호사협회 위원단	국제과학위원회
설립 주체	중국 정부	국제민주변호사협회	세계평화이사회
구성	중국인 과학자, 기자, 정당 및 사회단체인 70명	다국적 출신 변호사 9명	다국적 출신 과학자 6명
기간	1952.3.15. - 1952.4.10.	1952.3.3. - 1952.3.19.	1952.6.23. - 1952.8.31.
보고서	1952.4.25. 미제국주의의 조 선 내 세균 살포에 관한 죄 행조사보고서	1952.3.31. 북한 내 미국의 범죄에 대한 보고서 1952.4.2. 미군의 중국 영 토 내 세균 무기 사용에 대 한 보고서	1952.8.31. 북한과 중국에서의 세균전에 대한 사실조사를 위한 국제 과학위원단의 보고서

51) 「全世界人民起來，制止美國侵略者進行細菌戰爭的滔天罪行！」，『人民日報』，1952.2.23.
 52) “CIPHERED TELEGRAM.” 1952.2.21. 이 전문에서 마오쩌둥은 이시이 시로를 포함한 일본인 세균전 참가자를 거론하며 이들이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사용하던 방법과 유사하게 미국이 '세균전'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53) 「我中央人民政府外交部部長周恩來 支持朝鮮朴憲永外務相抗議美國政府進行細菌戰的聲明」，『人民日報』，1952.2.25.

‘세균전’ 설을 조사하기 위해 공산 진영이 기획한 조사는 1952년 총 세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다(<표 2>). 이 조사는 크게 중국 자국인에 의한 조사와 국제 조사로 나뉘었다. 먼저 중국 자국인으로 대부분 구성된 조사단의 이름은 ‘미국 제국주의 세균전 죄행 조사단(美國帝國主義細菌戰罪行調查團)’이었다. 이 조사단은 단장인 중국 홍십자회 회장 리더취안(李德全)을 위시하여 중국의 주요 정치사회단체 인물 및 의학 전문가가 참가하였으며 조사단에 속한 인원은 총 70명에 이르렀다. 이 인물 중에 조선족 출신 과학자인 방관혁(方觀赫)도 세균학 전문가로서 참가하였다.⁵⁴⁾ 조사단은 1952년 3월 15일 베이징을 출발하여 북한으로 향하였다.⁵⁵⁾ 3월 20일 북한에 도착한 조사단은 중국인민지원군 위생부, ‘중국 인민지원 방역 검험대(中國人民志願防疫檢驗隊)’와 함께 원산 일대와 38선 지역에 대한 세균전 혐의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조사단은 북한에서의 조사를 끝마치고 4월 10일 베이징에 도착하였으며, 4월 25일에는 항목별로는 7장으로 구성된 보고서를 『人民日報』에 발표하였다.

다른 두 번의 조사는 다양한 국가에서 온 인물들로 조직된 국제 위원단이었으며 각각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위원단(Commiss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mocratic Lawyers)과 국제과학 위원단(International Scientific Commission, ISC)에 의해 조사가 진행되었다.

국제민주법률협회는 1946년 10월 프랑스인 변호사들을 주축

54) 1935년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방관혁은 당시 중국 이름 ‘팡리양(方亮)’을 사용하였고 조사단의 명단에도 팡리양으로 되어 있다. 조사단에서 방관혁의 역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왕원주와 신규환, 「한국전쟁기 세균전 문제와 세균학자 방관혁의 선택」, 『의료사회사연구』, 제5권, 의료역사연구회, (2020).

55) 『“美國帝國主義細菌戰罪行調查團”組成 今天前往朝鮮和東北實地調查』, 『人民日報』, 1952.3.15.

으로 24개 국가의 법조인이 만든 단체다.⁵⁶⁾ 1951년 5월 27일 국제민주여성연맹 위원단(Commission of the Women's International Democratic Federation, WIDF)의 보고서 '우리는 고발한다(We Accuse)'⁵⁷⁾가 발간되었고 여기서 드러난 북한의 참상에 대해 국제민주법률협회는 심각성을 느꼈다. 이에 따라 협회는 1951년 9월 베를린 회의에서 미국의 국제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다국적 출신의 변호사를 소집하여 북한에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오스트리아 그라츠 대학교(University of Graz)의 국제법 교수인 헤인리히 브랜드와이너(Heinrich Brandweiner)를 단장으로 하는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위원단은 1952년 3월 3일부터 19일까지 평양과 평안남·북도를 포함한 북한의 여러 지역을 방문하였다.⁵⁸⁾

이후 위원단은 두 가지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하나는 1952년 3월 31일에 작성된 '북한 내 미국의 범죄에 대한 보고서(Report on U.S. Crimes in Korea)'이며, 다른 하나는 1952년 4월 2일에 작성된 '미군의 중국 영토 내 세균 무기 사용에 대한 보고서(Report on the Use of Bacterial Weapons in Chinese Territory by the Armed Forces of the United States)'이었다. 하지만 2주일 남짓 되는 짧은 조사 기간을 고려해보았을 때 심도 깊은 조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낮다.

마지막으로 국제과학위원단은 세 개의 조사단 중 외교 측면이나

56) Howard Tolley,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Global Advocates for Human Rights*,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4), p.28.

57) Women's International Commission, "We Accuse: Report of the Commission of the Women's International Democratic Federation in Korea, May 16 to 27, 1951," 1951.

58) Commiss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mocratic Lawyers, "Report on U.S. Crimes in Korea," 1952.3.31, p.1.

국제 여론 측면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었으므로 다른 조사단보다 자세히 다룰 필요가 있다. 국제과학위원단은 공산주의 성향을 가진 세계평화이사회(World Peace Council)에 의해 임시로 구성된 조직이었다.⁵⁹⁾ 국제과학위원단은 1952년 2월 25일 중국인민세계평화옹호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귀모뤄(郭沫若)가 세계평화이사회에 호소문을 제출한 것을 계기로 조직되었다. 이 같은 중국의 국제적 행동은 저우언라이가 작성한 반세균전 대처방안 6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였으며 이것은 마오쩌둥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⁶⁰⁾ 이후 1952년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세계평화이사회 집행국 회의가 개최되었고⁶¹⁾ 이때 중국 대표로 귀모뤄, 북한 대표로 이기영(李箕永)⁶²⁾이 참가하였다.

국제과학위원단은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위원 중 대표적인 인물은 조셉 니덤과 주코프-베레즈니코프(Zhukov-Verezhnikov)이다. 니덤은 생화학자로서 명망이 높았고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중국 충칭의 영국 대사관 과학 고문으로 근무하기도 하였다. 의료 전문가인 주코프는 소련이 주재한 하바로프스크 전범 재판에서 중일전쟁기 세균전에 참가한 일본 군인을 조사하였던 인물이다.⁶³⁾

첫 회의는 1952년 6월 23일 베이징에서 거행되었으며 중국 등베이 지방과 북한에서의 조사를 끝낸 뒤, 8월 9일 다시 베이

59) Leitenberg, "New Russian Evidence," p.186.

60) Endicott and Hagerman, *The United States and Biological Warfare*, p.8; 齐德学, 『朝鲜战争决策内幕』, (沈阳: 辽宁大学出版社, 1991), pp.281-282.

61) World Peace Council, "An Appeal of the World Peace Council Against Bacteriological Warfare (Supplement)," *People's China*, no. 8, (1952), p.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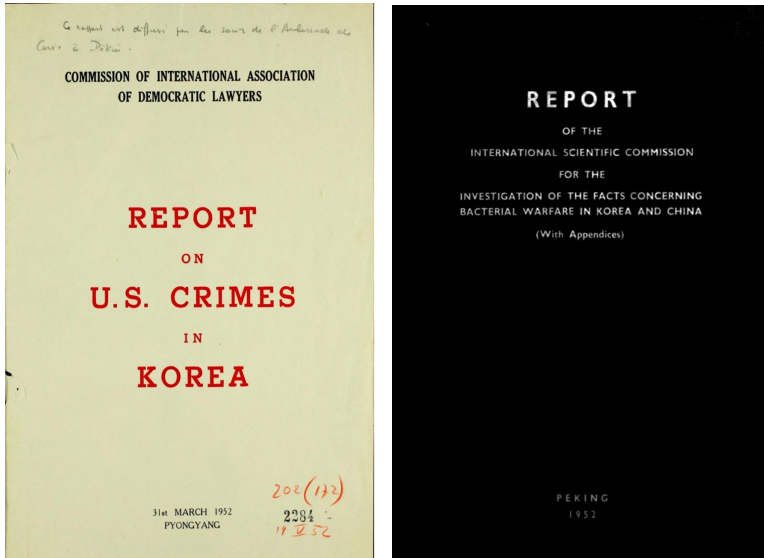
62) 이기영은 대표적인 월북 작가이며 소설 『고향』을 집필하기도 하였다. 또한 그는 『조선문학』 1954년 7-8월호에 『강안마을』이라는 제목의 중편소설을 연재하기도 하였는데, 소설의 내용 중에는 미군이 '세균전'을 실시한 사실을 고발하는 부분도 있다.

63) International Scientific Commission, "Report of the International Scientific Commission for the Investigation of the Facts Concerning Bacterial Warfare in Korea and China (with Appendices)," 1952, p.3.

징에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였으며 8월 30일에 초안을 완성하고 부록들을 수집하였다. 조사기간은 약 2개월 정도 걸렸으며, 40번의 회의가 진행되었다. 1952년 8월 31일에는 마지막 일정으로 모든 위원이 보고서에 서명하였고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하였다.⁶⁴⁾

64) International Scientific Commission, "Report of the International Scientific Commission," pp.63-67.

<그림 2> 국제민주변호사협회 위원단 보고서(Report on U.S. Crimes in Korea)의 표지⁶⁵⁾(좌)와 국제과학위원단의 보고서의 표지(우)



3. ‘세균전’ 설의 내막

가. 국제과학위원단의 조사와 보고서에 대한 신빙성 문제

국제과학위원단의 조사와 보고서는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다. 니덤은 1952년 8월 31일 중국 베이징에서의 기자회견에서 “미국 비행기가 세균 무기를 투하하는 것을 목격할 기회를 얻지는 못하였다”고 하였다.⁶⁶⁾ 마찬가지로 1952년 9월 27일 영국 런던의 기

65) 출처: 국가기록원(BTA0001128, 12-1).

66) 「國際科學委員會在北京舉行中外記者招待會」, 『人民日報』, 1952.9.15.

자회견에서 니덤은 “위원단이 현지 조사를 할 때 ‘세균전’ 공습 순간을 보기로 계획되어 있었지만 중국 측은 증거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현장 조사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위원단은 “중국 측을 언짢게 하고 싶지 않았고 ‘세균전’이 몇 달 전에 발생하였다는 지역에 한정하여 조사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또한 위원단은 “미군 비행기로부터 투하되었다고 하는 곤충을 직접 조사한 적이 없으며, ‘세균’ 공습으로 인해 병에 걸린 환자 중 단 한 명도 직접 조사하지 않았”고 “중국과 북한 과학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였다고 밝혔다.⁶⁷⁾ 이처럼 니덤을 비롯한 위원들이 보거나 분석한 것은 직접적인 증거를 목격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증거를 접한 것이었다.⁶⁸⁾ 즉 그들이 증거로서 확인한 것은 미군이 독충을 살포하기 위해 ‘사용’하였다는 용기(容器), 세균 매개 곤충의 샘플, 그리고 이른바 ‘세균전’ 피해자의 증언이었다.⁶⁹⁾ 결과적으로 위원단의 보고서는 공정성 측면에서 하자가 있었다. 비록 위원단은 669쪽이나 되는 방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지만 신빙성이 떨어지는 ‘증거’로 구성되었기에 그것에 의해 도출된 결론은 믿기 어렵다.

게다가 국제과학위원단이 ‘세균전’ 설을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도 논란이 된다. 강정구는 국제과학위원단이 “저명한 과학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분석하였으며 그들이 펴낸 보고서의 가치도 높게 평가하였다.⁷⁰⁾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

67) Dudley Barker, “The Germs He Did Not See,” *Daily Herald*, 1952.9.27.

68) Peter Williams and David Wallace, *Unit 731: the Japanese Army's Secret of Secrets*, (London: Hodder & Stoughton, 1989), p.240. 이 내용은 니덤이 직접 1987년 2월 캠브리지(Cambridge)에서 구술한 내용이며, 같은 해 11월 제국전쟁 박물관(Imperial War Museum)에서 콘래드 우드(Conrad Wood)가 니덤을 구술하였을 때도 그가 본 것은 모두 정황 증거뿐이라고 답하였다(1987년 11월 조셉 니덤의 구술).

69) Dudley Barker, “The Germs He Did Not See,” *Daily Herald*, 1952.9.27.

70) 강정구, 위의 책, pp.248-249.

았다. 국제과학위원단의 실질적 단장 역할을 맡은 조셉 니덤조차 처음에는 본인이 ‘세균전’을 조사할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위원단의 연락 업무만 맡고자 하였고 다른 전문가를 위원단에 초청하고자 노력하였지만 실패하였다. 또한 니덤은 자신의 아내에게 쓰는 편지에서 다른 위원들의 전문가적 소질이 부족하다고 언급하였다.⁷¹⁾

나. 우즈리의 회고록과 소련 문헌에서 드러난 ‘세균전’ 설의 내막

니덤이 부정하였던 북한과 중국의 ‘증거’ 조작은 최근에 공개된 우즈리의 회고록과 스탈린 사후 권력투쟁기에 생산되었던 소련 문서에서 잘 드러난다. 이 사료들을 중심으로 1952년에 불거진 ‘세균전’ 설의 내막을 살펴보기로 한다.

6·25전쟁 시기 중국 인민지원군 위생부 부장이었던 우즈리의 회고록⁷²⁾에는 중국 측에서 ‘세균전’ 설을 형성하는 과정이 기술되어 있으므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즈리에 의하면 강원도 평강군(平康郡)에 주둔한 중국인민지원군 제42군이 1952년 1월 28일 미군의 비행기가 지나간 뒤 곤충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의 전문(電文)을 1월 29일 지원군 사령부와 위생부에 각각 보내었으며 위생부에는 곤충 견본도 전달하였다. 지원군 사령관이었던 평더화이(彭德懷)는 제42군의 전문에 큰 관심을 가졌고 이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였다.⁷³⁾ 그러나 당시 위

71) Buchanan, “The Courage,” p.510-511

72) 吳之理, 「1952年的細菌戰是一場虛驚」, 『炎黃春秋』, 2013年 第11期. 우즈리의 회고록은 1997년 9월에 작성되었으나 2008년 그가 사망한 후 발견되었다. 그리고 2013년 11월에 가서야 중국의 개혁적 성향의 잡지인 『炎黃春秋』에 실리게 되었다(Leitenberg, “China’s False Allegations,” p.16).

73) 평더화이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세균전’을 보고함으로써 중국의 ‘세균전’ 선전 공세가 시작하였다는 사실은 러시아 문서에서도 확인되는 내용이다. 북경

생부 부장이었던 우즈리는 제42군이 보내온 곤충 견본을 조사하였지만 감염성 세균을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그는 미군이 세균전을 실시하였다는 증거는 없다고 평더화이에게 보고한다. 이에 대해 평더화이는 우즈리를 매우 강하게 비판하면서 “우리의 위생 부장은 미 제국주의의 간첩이어서 적을 대변하여 말한다”⁷⁴⁾라고 하였고, 이어서 그는 “전장에서는 천 명, 만 명이 죽을 수도 있지만, 세균 무기에 의해 한 명이 죽으면 너를 찾아 끝장을 내겠다”⁷⁵⁾라고 하며 우즈리에게 굉장한 모욕을 주었다. 평더화이가 우즈리의 태도에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평더화이가 잘못된 보고를 올린 것에 대해 상부로부터 문책 받을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 이후 우즈리는 일반 벼룩에서 페스트균을 배양하여 페스트 균에 감염된 벼룩을 만드는 것과 같은 ‘세균전’ 증거 조작을 감행하였고 세 차례의 ‘세균전’ 조사단이 방문할 때 안내도 도맡았다.

국제과학위원회 중 한 명이었던 주코프는 소련으로 돌아간 뒤 중국에서 그가 관찰한 바를 스탈린에게 보고하였고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중국 측에 “세균전은 헛된 놀람[虛驚]⁷⁶⁾”이라는 내용의 전문을 보냈다.⁷⁷⁾ 이에 저우언라이는 황커창(黃克誠) 총

주제 소련대사 쿠즈네초프(Kuznetsov)와 대화하는 자리에서 마오쩌둥은 ‘세균전’의 기원이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즉 평더화이의 보고에 기초하였다고 말하였다(“Telegram,” 1953.5.11).

74) “我们的卫生部长是美帝国主义的特务，替敌人说话 …”(吳之理, 위의 책, p.37).

75) “... 战场上死一千死一万都可以, 下来后死一个, 我都找你算账。”(吳之理, 위의 책, p.37).

76) ‘虛驚’은 구체적으로 “불필요하게 놀란 것임이 사후에 증명된 것”을 의미한다(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現代漢語詞典』 第7版, (北京: 商務印書館, 2016), p.1478).

77) 吳之理, 같은 책, p.39. 우즈리의 회고록에서도 소련의 문헌에서 밝힌 것과 같이 ‘세균전’ 선전의 중단 지시가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로부터 전달된 것이라고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우즈리의 회고록에서 밝히고 있는 사실 정보가 신빙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참모장(總參謀長)과 홍쉐즈(洪學智) 부사령(副司令)을 불러 “너희가 속임수를 사용하였는가?”하고 물었고 홍쉐즈는 “그렇지 아니 하였다면 보고할 것이 없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저우언라이는 “(세균전 선전을) 즉시 철회”하라고 명령하였다. 우즈리에 의하면 “수뇌부만 이 사실을 알았으며 하부 조직은 이를 전혀 몰랐기에 이후 중국의 저자들이 미국이 ‘세균전’을 실시하였다는 내용을 기술하였다”고 밝혔다.⁷⁸⁾

<표 3> ‘세균전’ 설과 관련된 주요 소련 문헌

시기	이름	기관 ⁷⁹⁾	코드 ⁸⁰⁾
1952.2.21.	Ciphered Telegram No. 16715 from Beijing, Mao Zedong to Filippov [Stalin]	APRF ⁸¹⁾	1, 2, 5
1952.2.23.	Cable, Filippov [Stalin] to Mao Zedong	RGASPI	2
1952.3.7.	Cable, Zhou Enlai to Filippov [Stalin]	RGASPI	2
1952.3.10.	Ciphered Telegram No.17318 from Beijing, Zhou Enlai to Filippov [Stalin]	RGASPI	2
1952.3.14.	Cable, Filippov [Stalin] to Zhou Enlai	RGASPI	2
1952.6.24.	Cable, Mao Zedong to Filippov	RGASPI	2
1953.4.13.	Explanatory Note from Glukhov to L.P. Beria	APRF	1
1953.4.14.	Explanatory Note from Lieutenant Selivanov to L.P. Beria	APRF	1
1953.4.18.	Explanatory Note from Lt. Gen. V.N. Razuvaev to L.P. Beria	APRF	1
1953.4.21.	Memorandum from L.P. Beria to G.M. Malenkov and to the Presidium of the CC CPSU	APRF	1, 4
1953.4.21.	Memorandum from V.N. Molotov to Members of the Presidium of the CC CPSU	APRF	1, 4

78) 吳之理, 같은 책, p.39.

79) APRF는 러시아 연방 대통령 문서관(Archive of the Presid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APRF), RGANI는 러시아 국립 현대사 문서관(Russian State Archive of Contemporary History, RGANI), RGASPI는 러시아 국립 사회 정치사 문서관(Russian State Archive of Socio-Political History, RGASPI)을 각각 의미한다.

80)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된 ‘코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1998년 『산케이신문[産經新聞]』에 의해 공개된 12개의 문헌,

시기	이름	기관	코드
1953.4.24.	Memorandum about Sessions of the CPSU CC Presidium from 13 March to 24 April 1953 ⁸²⁾	RGANI	3
1953.4.24.	Cover Sheet for Issue II Considered by the CPSU Presidium at Its Session on 24 April 1953 ⁸³⁾	RGANI	3
1953.4.24.	Protocol No 6 of the Meeting of the Presidium of the CC CPSU	APRF	1, 4
1953.5.2.	Resolution of the Presidium of the USSR Council of Ministers	APRF	1
1953.5.11.	Telegram to V.M. Molotov from Beijing from the USSR Ambassador to the PRC, V.V. Kuznetso	APRF	1
1953.5.17.	Memorandum from the Chairman of the Party Control Commission Shkiriatov to G.M. Malenkov	APRF	1
1953.6.1.	Telegram from the USSR Charge d'Affaires in the DPRK, S.P. Suzdalev to V.M. Molotov	APRF	1
1953.6.2.	Decision of the Party Control Commission of the CPSU CC Regarding Comrade S.D. Ignatiev	APRF	1

2: 2010년 RGASPI에서 공개한 6개의 문헌,

3: 2016년 RGANI에서 발견된 문헌,

4: 2016년 RGANI에 발견된 문서로 인해 실제 ‘존재’가 확인된 문서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5: 2010년 RGASPI에서 공개한 문서로 인해 ‘내용’이 확인된 문헌.

- 81) 1998년 웨더스비(Weathersby)가 발표한 글에서는 APRF 출처 문서의 일부 내용만 있었지만 이후 2016년 RGASPI는 해당 문서의 전문이 공개되었다. 이때 1998년 공개된 문서의 일부 내용은 2016년에 공개된 문서의 내용과 서로 일치하였다. 이로써 1998년에 『산케이신문[産經新聞]』 기자에 의해 공개된 러시아 문헌의 신빙성을 높여주었다.
- 82) 라이텐버그는 해당 문헌의 뒷면에 쓰여진 “Note No. 37B of Cde. Beria dated 21 IV 53,” “Note No. 59ss of Cde. Molotov dated 21 IV 53”을 통해 1998년에 공개된 1953년 4월 21일에 작성된 문헌 “Memorandum from V.N. Molotov to Members of the Presidium of the CC CPSU”과 “Memorandum from V.N. Molotov to Members of the Presidium of the CC CPSU”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물론 라이텐버그의 주장처럼 동일 문헌일 가능성은 존재하나, 기록 날짜와 작성인이 일치한다고 해서 반드시 동일 문헌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 83) 해당 문헌에 적혀져 있는 “24 April 1953 (Prot. No. 6),” “Note of the USSR MVD Concerning a Review of the Report from the Former [Soviet] Advisers Assigned to the DPRK Ministry of Public Security”는 1998년에 공개된 1953년 4월 24일에 작성된 문헌인 “Protocol No 6 of the Meeting of the Presidium of the CC CPSU”의 존재를 입증해주었다.

스탈린 사후 권력투쟁기에 생산되었던 APRF 보관 소련의 문서는 ‘세균전’ 선전과 북한의 ‘세균전’ 증거 조작에 소련의 개입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북한의 내무성 고문으로 파견되었던 글루호프(Glukhov)에 의하면, 북한에 파견된 소련의 고문의 도움을 받아 북한 정부는 오염지역을 허위로 설정하였으며, ‘세균전’ 증거 조작에 필요한 콜레라균은 중국에서 공급 받았다. 또 소련 고문은 국제과학위원단의 북한 방문 시, 공포감을 주기 위해 가짜 폭탄을 터뜨리는 것을 계획하였으며⁸⁴⁾ 이미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들을 매장하여 발견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심지어 세균전에 대한 ‘증거’를 만들기 위해 살아있는 사람을 병균에 감염시키는 일까지 자행하였다. 소련 고문은 북한의 두 사형수를 콜레라와 페스트에 감염시킨 다음 그들을 초가집에 격리시켜 ‘증거’를 만드는 일을 제안⁸⁵⁾ 하였는데 실제로 그 중 한 명이 사망하였다.⁸⁶⁾ 이와 같은 진술은 소련의 여러 간부들과 소련 국가안전부의 문서를 통해 반복적으로 나타난 사실이다. 하지만 1952년 ‘세균전’ 설 선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던 소련 정부는 1953년 3월 스탈린이 사망한 후 ‘세균전’ 설을 부정한다. ‘세균전’ 선전으로 인해 소련의 국제적 위신에 손해가 있었다⁸⁷⁾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소련은 1953년 5월과 6월 사이에 중국⁸⁸⁾과 북한⁸⁹⁾에 각각 ‘세균전’ 선전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전달하였다.

소련의 지시를 계기로 그 전까지 ‘세균전’ 설을 믿었던(혹은 의심하였지만 믿었던) 북한 수뇌부의 입장은 바뀌었을 수 있다.

84) “Explanatory Note from Glukhov to L.P. Beria,” 1953.4.13.

85) “Explanatory Note,” 1953.4.18.

86) “Memorandum from L.P. Beria to G.M. Malenkov and to the Presidium of the CC CPSU,” 1953.4.21.

87) “Memorandum,” 1953.4.21.

88) “Telegram,” 1953.5.11.

89) “Telegram,” 1953.6.1.

1953년 6월 1일 소련으로부터 ‘세균전’ 선전 중단 권고를 들은 북한의 선전선동부장 박창옥은 “중국 비행기로부터 (세균) 폭탄과 (세균을 담은) 용기가 투하되었고, 또 감염이 없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⁹⁰⁾라고 말하여 미국에 의한 ‘세균전’ 설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중국에 의해 ‘세균전’ 설이 조작된 것일 수 있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비치었다. 이것은 ‘세균전’ 설에 대한 북한의 큰 태도 변화를 의미한다. 1953년 박창옥의 발언은 1952년 ‘세균전’ 설을 최초로 제기할 때 북한 정부가 미군의 ‘세균 무기’ 사용을 진지하게 믿었던 것과 크게 대조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1952년 초 김일성은 ‘세균 무기’가 정기적으로 사용될 것을 두려워하기도 하였다.⁹¹⁾ 이 사실에 근거하여 볼 때, 1952년 초기 북한 수뇌부는 ‘세균전’ 설을 믿었다가 1953년 중엽 소련의 ‘세균전’ 선전 중단 권고 이후에 ‘세균전’ 설이 중국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을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중국의 상황과 유사하게 북한 수뇌부는 하부 조직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포로였던 미국의 중군기자 필립 딘(Philip Dean)에 의하면 1953년 3월에도 여전히 ‘세균 수집(collecting the germs)’과 같이 미군의 ‘세균전’ 설에 의거한 군부대의 위생 사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⁹²⁾

새롭게 발견된 중국과 소련의 사료와 이전 사료를 종합해 볼 때 1952년 ‘세균전’ 설은 중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헝가리 기자 티버 머레이에 의하면 1952년 3월 6일 북한의 보건성 부상(副相)인 로진한이 머레이에게 “우리는 ... 중국인민지원군을 통해 세균 공격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처음 진술하였다. 하지만 며칠 뒤 로진한은 머레이에게 “중국인민지원군”이 대신 “최전선

90) “Telegram,” 1953.6.1.

91) “Explanatory Note,” 1953.4.14.

92) Philip Deane, *I Was a Captive in Korea*, (New York: Norton, 1953), p.226.

의 전사”라는 용어를 기사에 사용하기를 요청하였다.⁹³⁾ 소련의 문서에서도 1952년 ‘세균전’ 설의 출처가 중국임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나타난다. 북한은 “중국을 통해 ‘세균전’에 대한 정보”를 받았다⁹⁴⁾고 하며, 이와 유사하게 라주바예프(Ражуев)는 베리아(Берия)에게 보내는 전문에서도 “1952년 봄 중국 정부가 북한 정부에게 미국에 대한 ‘세균전’ 혐의를 제기하는 성명서를 제공”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김일성과 박헌영은 ‘세균전’ 설에 대한 자문을 라주바예프에게 구했지만 라주바예프에 따르면 “소련의 고문관과 북한의 정부 기관은 이것이 사실인지 확증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⁹⁵⁾ 즉 1952년 ‘세균전’ 설에 대해 소련과 북한은 초기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중국에 의해 비로소 인지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우즈리의 회고록에서도 ‘세균전’ 설의 중국 기원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등장한다. 우즈리가 스탈린으로부터 ‘세균전’ 설이 사실인지 묻는 전화를 받았다고 한 것⁹⁶⁾을 고려해 볼 때, 소련이 아니라 중국에서 ‘세균전’ 설이 시작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우즈리의 회고록에 의하면 중국 인민지원군 제42군의 1월 29일 보고에서 제42군은 1월 28일 군 주둔지와 참호에서 벌레를 보았다고 하였다.⁹⁷⁾ 이후 공산 측의 ‘세균전’ 설 주장이 대대적으로 전개될 때 모두 이 날짜를 미군의 ‘세균전’ 개시 날짜로 적었다.⁹⁸⁾ 이처럼 ‘세균전’ 설이 처음

93) Tibor Méray, “The Truth about Germ Warfare,” *Franc-Tireur*, May 6-18, 1957, 6th.

94) “Explanatory Note,” 1953.4.14.

95) “Explanatory Note,” 1953.4.18.

96) 吳之理, 위의 책, p.37.

97) 吳之理, 같은 책, p.36.

98) 1952년 미군에 의한 ‘세균전’의 시작일이 우즈리의 회고록과 동일하게 마오쩌둥이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에도 1월 28일이라고 되어 있다(“Ciphred Telegram No. 16715 from Beijing, Mao Zedong to Filippov [Stalin],” 1952.2.21). 그리고 공산 측이 진행한 조사 보고서에서도 모두 미국의 ‘세균전’ 공격의 시작을

제기된 날짜가 중국에서 주장한 날짜와 동일하다는 것 또한 ‘세균전’ 설이 중국에서 비롯되었음을 시사하며 중국이 북한과 소련을 추동하여 두 나라도 ‘세균전’ 선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앞의 논의를 종합하여 봤을 때, 북한, 중국, 소련에 의한 ‘세균전’ 증거 조작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라이텐버그의 주장⁹⁹⁾처럼 공산 측의 ‘세균전’ 증거 조작 사실이 미국에 의한 ‘세균전’ 설을 완전히 부정할 수 있는 근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가령 세균전 ‘증거’의 조작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게 발견될 수 있는 소규모 실험적 ‘세균전’을 미국이 감행하였을 가능성과, 공산 측에서 증거를 과장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세균전’ 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다.

다. 중국과 소련의 ‘세균전’ 설 제기 목적

‘세균전’ 설의 진위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내기는 어렵지만 공산 진영이 ‘세균전’ 선전을 활용한 방식에 대한 조사는 가능하다. ‘세균전’ 설을 제기한 이유로 자주 거론되는 것으로 당시 중국과 북한 지역에서 만연하였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세균전’ 설을 이용하였다는 주장¹⁰⁰⁾이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새롭게 발견된 사료에 기반하여 기존에 비교적 논의되지 않았던 중국과 소련의 ‘세균전’ 활용 방식을 간단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중국은 소련의 지원을 받기 위해 ‘세균전’ 선전을 활용한 측면

1952년 1월 28일로 적었다.

99) Leitenberg, "China's False Allegations," p.20.

100) A. E. Cowdrey, "'Germ Warfare' and Public Health in the Korean Conflict," *Journal of the History of Medicine and Allied Sciences* 39, no. 2, (1984); Ruth Rogaski "Nature, Annihilation, and Modernity: China's Korean War Germ-Warfare Experience Reconsidered," *Journal of Asian Studies* 61, no. 2, (2002).

이 있다. 중국과 소련이 주고받았던 전문에서 중국은 미군의 ‘세균전’ 실시를 거론하면서 소련의 군사 지원이나 의료 지원을 함께 요청한 사실이 발견된다. 1952년 3월 11일 마오쩌둥은 미군 비행기가 세균을 살포하고 있다면서 스탈린에게 북한 지역을 지원할 전투기뿐만 아니라 선양 기지에 소련의 공군 사단을 더 투입해줄 것을 요청하였다.¹⁰¹⁾ 전쟁에서 인민지원군의 가장 큰 약점이 미군에 비해 형편없는 제공권 장악력이었기 때문이다.

3월 7일과 3월 10일 저우언라이는 미국의 ‘세균전’을 명목으로 의료분야 지원을 소련에 요청하였다. 3월 7일 저우언라이는 ‘세균전’에 대응하는 노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의 일환으로 9명의 보건 및 의료 전문가를 파견해줄 것을 소련에 요청하였다.¹⁰²⁾ 며칠 뒤 3월 10일 저우언라이는 미군의 만주 지방에 계속되는 ‘세균전’ 때문에 방역 조치에 불충분함이 있다고 스탈린에게 호소하면서 이에 따라 중국은 페스트, 콜레라, 파상풍, 장티푸스, 파라티푸스와 같은 각종 백신 2,000만 명분과 DDT 600톤을 소련에게 요청하였다.¹⁰³⁾ 즉 중국에게 ‘세균전’ 선전에 쓰이는 물자와 인력은 일종의 더 큰 이득을 챙기려는 ‘투자’였던 셈이다. 그러나 소련은 중국이 만족할 만한 물자를 제공해주지 못하였다. 저우언라이의 요청 물량에

101) 沈志华, 『中苏关系史纲 上册』,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6), pp.182-187.

102) “Cable, Zhou Enlai to Filppov [Stalin],” 1952.3.7. 다음과 같이 중국은 소련에 구체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전문가를 명시하였다. 보건 방역 전문가 1명, 세균 미생물학과 의학을 전공한 의사 및 연구자 1명, 곤충 및 기생충 학자 1명, 바이러스 백신을 제작할 수 있고 백신과 혈청 생산을 전공한 세균학자 2명, 백신과 혈청을 표준화할 수 있는 연구자 2명, 소독과 세균 박멸 전문가 1명, 역학자(疫學者) 1명.

103) “Ciphred Telegram No. 17318 from Beijing, Zhou Enlai to Filippov [Stalin],” 1952.3.10.

비해 소련이 제공한 물자는 요청량의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¹⁰⁴⁾ 그러나 당시 중국인민지원군의 파병 규모를 고려해 봤을 때, 저우언라이는 처음부터 전시에 필요량보다 더 많은 백신을 소련에게 요구하였다. 소련은 이를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판단한 적당량을 중국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소련은 전쟁 수행 명목으로 소련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국의 의중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 북한 주재 소련 고문 라주바예프는 중국 지도자들이 전쟁이 끝나면 소련의 군사 지원이 줄거나 중단될 것을, 한국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중국과 북한의 역량 약화를 초래할 것을 각각 우려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¹⁰⁵⁾ 즉 중국 입장에서 6·25전쟁이 지속되는 것은 크게 불리한 것이 아니었다.

소련의 경우, 중국처럼 ‘세균전’ 선전을 통해 6·25전쟁을 지속하려는 의의가 있었지만 이유는 달랐다. 소련이 전쟁 지연 전략의 방법으로 ‘세균전’ 설을 활용한 이유는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세균전’을 구실 삼아 휴전협상을 지연시키거나 대규모 군사 행동을 개시하는 방법¹⁰⁶⁾으로 전쟁을 장기화할 수 있으므로 소련은 ‘세균전’ 설을 전쟁 장기화의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소련의 정보 요원이었다가 미국으로 망명한 유리 라스트보로프(Yuri Rastvorov)은 소련의 ‘세균전’ 설 활용 목적이 전쟁 지연에 있음을 뒷받침하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에 의하면 소련의 간첩 활동과 선전 운동은 그 배후에 장기 외교 전략이

104) “Cable, Filippov [Stalin] to Zhou Enlai,” 1952.3.14.

105) 梁鎮三(沈志华), 「朝鮮戰爭期間中朝高層的矛盾、分歧及其解決—冷戰中社會主義陣營內國家關係研究案例之一」, 『近代史研究所集刊』 第四十期, (2003), p.83.

106) “Communist Charges of US Use of Biological Warfare,” General CIA Records, 1952.3.25, CIA-RDP79S01011A000600050006-3, p.2.

있으며, ‘세균전’ 선전의 배후에 있는 소련의 외교 전략은 휴전 회담을 지연시켜 전쟁을 오래 지속하는 것이며, 동시에 당시 미 국무장관 존 포스터 덜레스(John Foster Dulles)가 진행 중이던 일본과의 강화조약을 방해하는 것이었다.¹⁰⁷⁾

당시 소련의 외교 전략은 스탈린의 의중이 반영되었을 수 있다. 스탈린 사후에 곧 ‘세균전’ 선전이 잠잠해진 것과 정전협정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간접적으로 증명한다. 실제로 스탈린은 6·25전쟁을 큰 물자나 인원을 들이지 않고 중국과 북한을 통해 최대 적국인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소진시키는 수단이라고 생각하였다. 스탈린은 6·25전쟁에서 북한 사람들이 입는 피해를 제외하고는 어떤 불리함도 없다면 6·25전쟁은 미국의 제3차 세계대전 준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¹⁰⁸⁾ 또한 6·25전쟁은 소련에게 미국의 군사 기술과 조직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 좋은 기회였다. 그래서 스탈린은 중국과 북한이 휴전회담에서 강경한 노선을 취하도록 하여 회담을 지연시켰다.¹⁰⁹⁾

107) Yuri A. Rastvorov, “Red Fraud and Intrigue in Far East,” *Life*, 1954.12.06, pp.176-178; 『蘇聯의 極東侵略陰謀 韓國戰爭의 脚本内幕 (下)』, 『동아일보』, 1955.2.20.

108) “Ciphared Telegram No. 21646 from Mao Zedong to Filippov [Stalin],” 1952.7.15; 梁鎮三(沈志华), 같은 책, p.86.

109) Weathersby, “Deceiving,” p.179.

4. 맺음말

이 글은 공산 측의 ‘세균전’ 설 제기 과정, 그 과정에서 실행된 ‘증거’ 조작 양상, 공산 측이 이러한 ‘세균전’ 설을 제기한 내막을 각각 살펴보았으며 기존 연구에서 소홀히 다루어졌던 ‘세균전’ 설에서 북한의 반응과 대응도 알아보았다.

북한을 비롯한 공산 진영이 펼친 ‘세균전’ 혐의 제기 양상은 크게 1951년 단발적으로 ‘세균전’ 혐의를 제기한 시기와, 1952년 본격적으로 ‘세균전’ 혐의를 제기한 시기로 구분할 수 있었다. ‘세균전’ 설 공세가 재개된 1952년 2월부터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소련도 참여하였다. 제한적인 ‘세균전’ 선전이 이루어진 1951년과 달리 1952년에는 미국에 대한 ‘세균전’ 혐의 선전이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특히 공산 측은 국제과학위원단을 위시로 한 세 번의 조사단을 조직하여 ‘세균전’ 혐의를 조사하였고 이후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국제과학위원단의 사실상 단장 역할을 맡은 조셉 니덤이 기자회견 석상과 인터뷰에서 밝힌 위원단의 조사 수행 방식과 능력의 한계는 국제과학위원단 보고서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였다.

최근 중국 인민지원군 위생 부장 우즈리의 회고록과 스탈린 사후에 작성되었던 소련의 문서는 ‘세균전’ 설이 공산 진영에 의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라이텐버그의 주장과 달리 공산 측의 ‘세균전’ 증거 조작이 반드시 ‘세균전’ 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끝으로 중국과 소련이 ‘세균전’ 설을 활용하는 과정의 이면에서 추구하였던 목표도 살펴보았다. 중국은 ‘세균전’ 설을 통해 소련으로부터 군사와 의료 분야의 지원을 얻고자 한 모습이 보이며, 소련의 경우 ‘세균전’ 설을 통해

전쟁을 지연시켜 군사·외교·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의도가 포착되었다.

비록 이 연구는 자료 접근의 한계로 공산 측의 내부 문헌을 폭넓게 다루지 못하여 새로운 사실의 제시와 문제 제기가 제한적이었다는 한계가 있으나, 다양한 지역에서 생산된 사료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에서 밝히지 못하였던 몇 가지 사실을 새롭게 발굴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우선 1951년과 1952년 ‘세균전’ 설의 기원이 서로 달랐다는 점을 밝혀, 1951년 북한이 ‘세균전’ 설을 단독으로 제기하였던 배후에는 소련이 있었으나 1952년 ‘세균전’ 설은 중국이 주도하였다는 ‘중국 기원설’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1952년 협의 제기 초기에 북한과 소련은 중국에 적극 협조하였던 것과 달리 전쟁 말미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소련의 문서에서 나타난 ‘세균전’ 설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태도 변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 중국의 ‘세균전’ 설 제기 목적 중에 소련으로부터 군사 및 의료 지원을 받기 위함이 있었다는 점, 중국 지도부는 ‘세균전’ 설이 이후에 거짓임을 알았으나 이를 하부 조직에는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각각 이 글에서 새롭게 밝혔다.

(원고투고일 : 2021. 7. 8, 심사수정일 : 2021. 8. 17, 게재확정일 : 2021. 8. 25.)

주제어 : 6·25전쟁, 세균전, 북한, 중국인민지원군, 전염병, 심리전, 선전, 소련, 냉전, 미국, 크로포드 샘즈

<참고문헌>

1. 신문 및 잡지

『동아일보』, 『로동신문』, 『민주조선』, 『조선일보』, 『조선문학』, 『주간 건강과 질병』, 『炎黃春秋』, 『人民日報』, *Daily Herald, Life, New York Times, People's China*

2. 우드로 윌슨 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자료(연도순)

“Ciphred Telegram No. 16715 from Beijing, Mao Zedong to Filippov [Stalin],” 1952.2.21.

“Cable, Filippov [Stalin] to Mao Zedong,” 1952.2.23.

“Cable, Zhou Enlai to Filippov [Stalin],” 1952.3.7.

“Ciphred Telegram No.17318 from Beijing, Zhou Enlai to Filippov [Stalin],” 1952.3.10.

“Cable, Filippove [Stalin] to Zhou Enlai,” 1952.3.14.

“Cable, Mao Zedong to Filippov,” 1952.6.24.

“Explanatory Note from Glukhov to L.P. Beria,” 1953.4.13.

“Explanatory Note from Lieutenant Selivanov to L.P. Beria,” 1953.4.14.

“Explanatory Note from Lt. Gen. V.N. Razuvaev to L.P. Beria,” 1953.4.18.

“Memorandum from L.P. Beria to G.M. Malenkov and to the Presidium of the CC CPSU,” 1953.4.21.

“Memorandum from V.N. Molotov to Members of the Presidium of the CC CPSU,” 1953.4.21.

“Memorandum about Sessions of the CPSU CC Presidium from 13 March to 24 April 1953,” 1953.4.24.

- “Cover Sheet for Issue II Considered by the CPSU Presidium at Its Session on 24 April 1953,” 1953.4.24.
- “Protocol No 6 of the Meeting of the Presidium of the CC CPSU,” 1953.4.24.
- “Resolution of the Presidium of the USSR Council of Ministers,” 1953.5.2.
- “Telegram to V.M. Molotov from Beijing from the USSR Ambassador to the PRC, V.V. Kuznetso,” 1953.5.11.
- “Memorandum from the Chairman of the Party Control Commission Shkiriato to G.M. Malenkov,” 1953.5.17.
- “Telegram from the USSR Charge d’Affaires in the DPRK, S.P. Suzdalev to V.M. Molotov,” 1953.6.1.
- “Decision of the Party Control Commission of the CPSU CC Regarding Comrade S.D. Ignatiev,” 1953.6.2.
- Tibor Méray, “The Truth about Germ Warfare,” Franc-Tireur, May 6–18, 1957, 6th.

3. 단행본 및 논문

- 강정구, 『한국전쟁과 미국의 세균전』, 『분단과 전쟁의 한국현대사』, 서울: 역사비평사, 1996.
- 고상진과 전도명, 『조선전쟁시기 감행한 미제의 만행』,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9.
- 국민방첩연구소, 『세균모략전: 6.25 당시의 붉은 날조극』, 서울: 甲子文化社, 1984.
- 김학준, 「6·25전쟁에 관한 몇 가지 예비적 토론」, 『탈냉전시대 한국전쟁의 재조명』, 서울: 백산서당, 2000.
- 박명림, 「한국전쟁/6·25를 기억하는 방식」, 역사비평편집위원회, 『역사용어 바로쓰기』, 서울: 역사비평사, 2006.
- 정용욱과 이길상, 『해방전후 미국의 대한정책사 자료집 13: 소련 중국의

- 한반도 관련 자료』, 서울: 다락방, 1995.
- 『조선중앙년감 1951-1952』,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2.
- 『조선중앙년감 1953』,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3.
- A. E. Cowdrey, *The Medics' War*, 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U.S. Army, 1987.
- Crawford F. Sams, *Medic: The Mission of an American Military Doctor in Occupied Japan and Wartorn Korea*, Armonk, NY: M.E. Sharpe, 1998.
- Howard Tolley,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Global Advocates for Human Rights*,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4.
- Malcolm W. Cagle and Frank Albert Manson, *The Sea War in Korea*, Annapolis: United States Naval Institute, 1957.
- Peter Williams and David Wallace, *Unit 731: the Japanese Army's Secret of Secrets*, London: Hodder & Stoughton, 1989.
- Philip Deane, *I Was a Captive in Korea*, New York: Norton, 1953.
- Sonia G. Benson and Gerda-Ann Raffaele, *Korean War: Almanac and Primary Sources*, Vol. 1, Detroit: UXL, 2002.
- Stephen Endicott, and Edward Hagerman, *The United States and Biological Warfare: Secrets from the Early Cold War and Korea*,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8.
- Zhang Shu Guang, *Mao's Military Romanticism: China and the Korean War, 1950-1953*, Lawrence: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95.
- 齐德学, 『朝鲜战争决策内幕』, 沈阳: 辽宁大学出版社, 1991.
- 沈志华, 『中苏关系史纲 上冊』,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6.
- 中国社会科学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現代漢語詞典』 第7版, 北京: 商務印書館, 2016.

- 조성훈, 「한국전쟁의 세균전 논쟁 비판」, 『군사』 제41호, (2000).
<http://uci.or.kr/I410-ECN-0101-2016-390-001811943>
- 황영원, 「왜 거짓말을 하였는가?」, 『생태환경과 역사』 제2호, (2016).
<http://uci.or.kr/I410-ECN-0101-2017-090-002216430>
- A. E. Cowdrey, “Germ Warfare and Public Health in the Korean Conflict,” *Journal of the History of Medicine and Allied Sciences* 39, no. 2, (1984).
<http://doi.org/10.1093/jhmas/39.2.153>
- Kathryn Weathersby, “Deceiving the Deceivers: Moscow, Beijing, Pyongyang and the Allegations of Bacteriological Weapons Use in Korea,”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11, (1998).
- Milton Leitenberg, “New Russian Evidence on the Korean War Biological Warfare Allegations: Background and Analysis,”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11, (1998).
- _____, “China’s False Allegations of the Use of Biological Weapons by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Korean War,”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Working Paper* 78, (2016).
- Ruth Rogaski “Nature, Annihilation, and Modernity: China’s Korean War Germ-Warfare Experience Reconsidered,” *Journal of Asian Studies* 61, no. 2, (2002).
<http://doi.org/10.2307/2700295>
- Stephen Endicott, “Germ Warfare and ‘Plausible Denial’: The Korean War, 1952–1953,” *Modern China* 5, no. 1, (1979).
<http://doi.org/10.1177/009770047900500103>
- Thomas Powell, “Biological Warfare in the Korean War: Allegations and Cover-Up,” *Socialism and Democracy* 31, no. 1, (2017).

<https://doi.org/10.1080/08854300.2016.1265859>

Tom Buchanan, "The Courage of Galileo: Joseph Needham and the 'Germ Warfare' Allegations in the Korean War," *History* 86, no. 284, (2001).

<https://doi.org/10.1111/1468-229X.00203>

梁鎮三(沈志华), 「朝鮮戰爭期間中朝高層的矛盾、分歧及其解決—冷戰中社會主義陣營內國家關係研究案例之一」, 『近代史研究所集刊』 第四十期, (2003).

<https://doi.org/10.6353/BIMHAS.200306.0055>

4. 기타 자료

서경희,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803388, 2008.12.31.

Commiss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mocratic Lawyers, "Report on U.S. Crimes in Korea," Pyongyang, 1952.3.31.

General CIA Records, "Communist Charges of US Use of Biological Warfare", 1952.3.25, CIA-RDP79S01011A000600050006-3.

International Scientific Commission, "Report of the International Scientific Commission for the Investigation of the Facts Concerning Bacterial Warfare in Korea and China (with Appendices)," Peking, 1952.

Women's International Commission, "We Accuse: Report of the Commission of the Women's International Democratic Federation in Korea, May 16 to 27, 1951," 1951.

(Abstract)

The Process of 'Biological Warfare' Allegation and Behind-The-Scenes Accounts during the Korean War

Jeon, Ye-mok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a series of events when North Korea, China, and the Soviet Union raised the allegation of 'biological warfare' against the US and allies, and its inner story by comparing and analyzing documents, letters, memoirs recorded in Korea, China, Britain, the Soviet Union, and the US during the Korean War.

This article consists of two parts. The first part examines the process of raising the allegations mainly from 1951 to 1952. The allegations of biological warfare by the US were first raised on May 8, 1951 by Park Heon-young, a foreign minister of North Korea. In 1952, the large-scale propaganda of the 'biological warfare' allegations occurred in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China, and the Soviet Union. Three investigation teams were, supported by those three countries, also established. The second one looks into 'evidence' provided by communist countries was highly likely to be fabricated. This fabrication was attested to in the memoir of a head of the Chinese Army's sanitary department, Wu Zhi-ri, as also was reaffirmed in documents of the Soviet Union, implying that the origin of allegations of 1952 was from China. This revelation, however, does not necessarily conclude that the allegations were entirely manipulated.

China and the Soviet Union used the allegations of 'biological warfare' for the benefit of their countries. China appeared to use the allegation to gain military and medical supports from the Soviet Union.

This study limitedly presents new facts, but it reveals several new facts. First, the origins of the 1951 and 1952 'biological warfare' were

different from each other, and those were the Soviet Union and China, respectively. Second, the North Korean leader's position on 'biological warfare' changed between 1952 and 1953. Third, in 1952 the Chinese leaders knew that the biological warfare theory was false but did not inform low-level government officials.

Keywords : Korean War, North Korea, Biological Warfare, Germ Warfare, People's Volunteer Army, Infectious Disease, Psychological War, Propaganda, Soviet Union, Cold War, United States, Crawford Sams